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비교

A Study o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ime Use: Focusing on the Employed Men and Women in Korea by Using 1999 and 2009 Time Diary Data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과
전임강사 차 승은*

Dept. Child, Family and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Full-Time Lecturer Seung-Eun Cha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V. 토의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the level of perceived lack of time in Korean society, to link it to time management and to identify the possible association that accounts for time shortage. I employed the gender perspective in order to reveal the dynamics and complexity of the perception of a lack of time in the population.

The sample for the study was drawn from the 1999 and 2009 Korean time diar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the original data, I selected a sample of second shift families(men and women who are presently working and raising children) living in metropolitan areas(including Seoul and six major urban areas in Korea). The dependent variable was time pressure measured by a single-item question on a four-point likert scal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working mothers perceived a greater time shortage as compared to working fathers. The time use pattern showed change during the periods, indicating that people worked fewer hours in paid labor and enjoyed more leisure hours and personal care hours. However, on average, people seemed to have experienced a greater time lack in 2009 as compared to 1999. The results from the

* 주저자, 교신저자: secha@suwon.ac.kr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revealed that even though there were similarities in the impact of relevant factors, men's perception of a lack of time was more closely linked with their work role and social status, while for women, this perception was influenced by work and family duties. This indicates that Korean working mothers and fathers are facing a double jeopardy of time shortage in terms of combining their work and family roles. As a result, the level of time pressure by gender is converging toward a "never enough" phase. These findings generated policy implications and detailed suggestions.

Key Words : 시간부족(lack of time), 시간압박(time pressure),
시간관리(time management), 시간활용(time use),
생활시간자료(time diary data), 남녀차이(gender difference),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시간 관리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해설이 넘쳐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시간 관리를 위한 독특한 수첩과 기록장에서부터, 스마트폰의 일정관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시간 부족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도구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시간부족을 해소하면서 시간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일반인들의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시간부족, 그것은 후기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만연한 현상으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이미 파고들었다. 지난 10여 년간 이 시간부족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관련연구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김정석, 2005; 손문금, 2005, 2010; 윤소영, 2003; 유소이·최윤지, 2002; 이기영·이승미, 1994; 진미정, 2008), 시간계획과 시간활용의 방식 등 시간부족을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시간활용에 대한 지침서(민도기, 2010)나 시간관리전략(서인주·두경자, 2009)에 관한 연구들도 발견된다. 그

에 비해, 실질적인 시간사용활용방식에 관한 연구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시간에 대한 정서나 느낌, 혹은 시간을 둘러싼 심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즉, "시간사용"이라는 객관적인 시간소비와는 구분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뜻한다(차승은, 2008, 2010).

최근 서구에서는 이 시간부족을 스트레스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조명하는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Szollós, 2009). 미시경제 및 가정관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사노동과 관련된 시간부족현상에 대해 꾸준한(히) 관심을 가져왔고(이승미·이기영, 1990), 얼마전부터는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 균형의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이영환·이수재, 2007; 정순희·김현정, 2002). 최근에는 인구학 및 가족학 분야에서도 시간자원배분의 불평등성과 시간부족경험에서의 차별성 및 그 결과물(outcome) 대한 탐색이 다루어지고 있다(차승은, 2008, 2010; Bianchi Milkie, & Robinson, 2006). 더욱이 개인과 그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조직차원에서도 시간자원과 시간부족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행정조직

이나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직종, 업무내용 및 직업특성별로 관리자 등이 지각하는 시간부족인식의 수준과 그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 역시 발견된다(Lim, 2009). 다만, 아직까지 시간부족인식 그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더욱이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시간부족연구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최근에 와서 국제시간비교연구가 국가별 시간자료의 호환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다(Bittman, 2011; Michelson, 2005). 이러한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간부족이나 생활시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통계수치들을 생산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 졌다. 이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간일지자료인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이 지각하는 시간부족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간부족인식과 시간소비와의 실증적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II.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1. 시간부족의 개념과 그 특성

시간부족인식은, 시간을 경험하면서 지각하게 되는 사회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주관적인 정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정서를 모두 포함한다(Southerton, 2003). 하나는 시간자원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어떤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된 24시간 내에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수행할 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경험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Bianchi Milkie, & Robinson, 2005; Robinson & Godbey, 1999). 또 다른 측면은 시간의 속도와 관련된 정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부족은 지각하는 시간의 속도가 빨라서 재촉하거나 서두르게 되는

느낌을 말한다(Garhammer, 2002).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시간표 상의 제약과 속도감은 차별적이다. 다만, 시간소비와 관련된 시간부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으로 인식하면, 이 두 개념 모두 시간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바쁘다”(busy)는 정서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Szollos, 2009).

Gunthorpe와 Lyons(2004)나 Zuzanek(2004)는 이 시간부족인식을 스트레스의 한 차원으로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시간부족인식이 단기간에 느끼는 일시적인 정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장기적·누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소수의 대상자에 대한 실험관찰 연구에서 시간부족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현상과 유사한 신체 및 정서반응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활만족도나 주관적인 건강 혹은 맥박수의 증가와 같은 특이한 신체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Bianchi et al., 2005; Teuchmann, Totterdell, & Parker, 1999; Zuzanek, 2004). 그러나, 아직 시간부족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기존의 스트레스 이론과의 연계도 아직은 느슨한 편이다. 가령, 시간부족과 연관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 시간부족스트레스로 인해 겪게 되는 독특한 심리적인 증상이나 그것이 초래하는 심리사회적 반응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질병 및 질환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명확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겠다(Szollos, 2009). 따라서 시간부족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 패턴에 대한 정밀한 정보의 축적이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간부족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시간부족의 수준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시간부족인식과 시간관리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현대인들에게는 왜 시간이 부족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한다. 이를 크게 두 가지 논의로 구분하자면, 실제 시간소비 패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과 시간부족은 심리적인 결과물이라는 입장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우선, 시간소비패턴의 변화가 시간부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은 사람들의 생활시간활용 방식이 시간부족을 더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였다(Daly, 1996; Hochschild, 1996). 시간압박은 제한된 시간동안 활동의 수(numbers of activities)가 많을 때 지각하게 된다(Daly, 1996). 여가활동이나 돌봄활동처럼 최근 들어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그 내용에서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가나 돌봄노동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수는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여가연구들은 여가활동의 다양화와 여가생활이 일반인의 삶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시간부족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Gershuny, 2000). 일군의 가족학자들은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등 개별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과 돌봄활동의 분화가 시간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Daly, 2002). 가령, 과거의 아동돌봄은 먹이고, 씻기기와 같이 돌봄행동의 정의가 일부 영역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돌봄행동에는 책임어주기, 함께 활동하기, 놀아주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Bianchi et al, 2006).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돌봄행동에 성인 및 노인돌봄의 영역도 무급가족돌봄의 영역에서 점차 그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다(김정석, 2005).

한편, 활동수의 증가와 시간부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동시행동, 즉 주행동(primary activity)

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secondary activity)하는 패턴도 매우 중요하였다. Robinson과 Godsby(1999)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번에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시행동이 보편화 되고, 기술발달로 실제 동시행동의 강도도 강해진 것이 총량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이 바쁘다고 느끼고, 시간에 쫓기는 정서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활동수의 증가 이외에도 단일 행위가 24시간 시간표내에서 증가한 현상 역시, 시간부족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쉬기 위해 일을 한다”는 말처럼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이나, 이를 소비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임금대비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Schor, 1992). 그리고 이러한 장시간노동의 증가는 시간계좌에서 다른 활동시간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시간부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Meinzies & Newson, 2007).

이처럼, 시간부족현상의 실체를 인정하는 연구와는 다르게 심리적-환경적 결과물이라고 보는 입장의 논의들은 시간부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실질적인 시간활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시간관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가령, 인터넷 세계와 같은 가상세계의 구성은 시간개념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간부족의 풍토를 양산했다고 한다(Putnam, 2000). 한편, 여가관련 연구들은 여가산업의 증가로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동일한 시간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활동이 늘어난 점도 시간부족의 인식을 생산해 내는데 일조하였다고 본다(Schwartz, 2004).

개인이 감당하는 역할의 수와 역할 내용에 관심을 가졌던 생애과정연구들은 시간부족인식을 특정 연령 및 생애단계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즉, 시간부족은 역할수행이 많이 이루어

지는 중년기 시기에 빈번하게 겪는 경험일 뿐이며, 오히려 기대여명의 증가만큼이나 시간부족을 느끼지 않는 생애기간은 더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Gershuny, 2000). 비교문화적 입장에서는 시계문화를 타하는 연구들도 발견된다. Norgate(2006)에 따르면, 사건이나 과업위주의 인식을 할 때, 시·분·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계의 사고보다 시간부족을 덜 지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성인들의 시간부족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10년간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시간변화는 주5일제 근무의 확산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윤소영, 2003). 주5일제 근무의 확산은 휴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류재숙·박연옥·이승곤, 2005). 기대여명의 증가로 생애 전반에 걸쳐 여유시간은 증가하였으며(지현진, 2010), 시간조망(time perspective)역시 변화하였다(Carstensen, 2006). 실제로 생의 후반기에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전생애적으로 시간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방식도 기존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Carstensen, 2002). 그런가하면 주당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줄어들었지만, 노동 강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임문선, 2005)도 있어서 상이한 주장과 현상과 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선행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시간부족인식의 수준과, 그 변화방향, 그리고 관련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시간부족인식과 관련요인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부족한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시간소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활동수가 증가할수록 시간표상에서 활동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부족을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labor) 즉, 유급노동을 비롯하여 무급가사노동이나 무급돌봄 노동은 오히려 시간부족인식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승미·이기영, 1990; 차승은, 2008, 2010; Bianchi et al., 2006). 그에비해,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은 상대적으로 단위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부족과는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시간부족경험도 다양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시간부족인식이 약하다가 성인기로 진행하면서 시간부족이 증가하고, 중년기에 고점을 찍은 후 다시 시간부족인식이 감소하는 “거꾸로 된 U자”형 패턴을 나타낸다(Daly, 1996; 차승은, 2010).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시간부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방향이며, 임금수준 역시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lissa, Mattingly, Nomaguchi, Bianchi, & Robinson, 2004; 차승은, 2010). 요일특성도 시간부족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었는데, 평일보다는 휴일에 오히려 시간부족을 더 심하게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oen, 2003; Bianchi et al., 2006; 김정석 외, 2010; 차승은, 2010).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은 시간부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여부를 비롯한 유급노동시간, 그리고 직종에 이르기까지 직업관련 특성들이 대체로 이 시간부족과 유의미한 관련성 있었다. 때문에 시간부족은 직업스트레스의 한 차원으로 시간유통성과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윤대혁, 2008).

이러한 유급노동시간은 실제 성차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Sayer, 2005). 성별 시간

부족차이를 분석한 국내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과 비취업자가 모두 포함된 전체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승은, 2010). 다만, 이러한 성별 차이도 취업효과를 통제한 후 살펴보면, 취업한 남성과 여성만을 비교하면, 취업여성이 취업남성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성(gender)별 차이보다도 오히려 취업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차가 취업효과에 의해 설명된다면, 그와는 별도로 취업과 가족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취업남녀가 지각하는 시간부족인식은 어떠한 수준인지, 어떠한 시간활용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지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일과 가족역할을 병행하는 취업남녀에 대한 2차 표본을 선정하여 그들의 시간부족인식의 수준과 시간부족과 생활시간활용패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성별 차이점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산한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틀을 가지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040가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기록한 이틀치 시간일

지를 데이터화 한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1999년부터 5년마다 이 조사를 통해 시간일지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9생활시간조사원자료(n=61,093)와 2009생활시간조사원자료(n=40,526)에서 연구주제에 맞는 표본을 추출하였다¹⁾.

표본추출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1999년과 2009년 자료에서 각각 두 개씩 총 4개의 하위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첫 번째 표본은 각 년도의 자료에서 둘째날 시간일지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후 지역과 연령, 그리고 학생여부를 통해 도시거주 성인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7개 주요 도시(서울 및 6개 광역시) 거주하는 20세 이상 79세 미만의 성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때 성인 가운데 현재 학생으로 대학 및 기타 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의 생활일지는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시간일지의 수는 각각에서 15,391개(1999년 자료), 7,809개(2009년 자료)이었다(<표 1-1> 참조).

두 번째 표본은, 첫 번째 표본 가운데 1999년과 2009년 자료 각각에서 직업과 가족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조사 당시 소득활동을 하는 대상자들만을 선별하였고, 여기에서 미혼자(never-married)는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취업남녀의 생활일지수는 1999년 자료가 총 6,647개이었고, 2009년 자료가 총 3,497개 이었다(<표 1-2> 참조).

2. 분석도구

시간부족인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1999와 2009년 자료에서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1) 현재 3개의 자료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일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4년 자료까지 기술하게 되면 변화의 해석 면에서나 분석의 간결성 면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여, 이 연구에서는 1999년과 2009년의 비교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 10년간 차이의 변화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두개 년도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본다.

〈표 1-1〉 20-79세 도시거주 성인의 성별 및 연도별 분석대상자 특성

		1999(n=15,391)		2009(n=7,80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46.0%	54.0%	60.1%	39.9%
연령	20's	18.5%	21.2%	12.8%	13.7%
	30's	29.4%	27.0%	21.6%	21.9%
	40's	23.7%	21.8%	27.1%	25.2%
	50's	15.4%	14.3%	18.9%	18.8%
	60's	9.4%	8.8%	12.2%	11.0%
	70's +	3.5%	6.8%	7.4%	9.4%
교육수준	중졸이하	24.8%	41.7%	18.7%	30.7%
	고등학교	46.8%	40.8%	40.8%	38.6%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25.5%	16.9%	36.3%	28.8%
	대학원이상	2.9%	0.6%	4.2%	1.9%
결혼지위	미혼	19.6%	13.7%	18.0%	14.0%
	배우자 있음	77.1%	70.6%	76.9%	71.3%
	이혼	1.7%	13.2%	1.7%	11.3%
	사별	1.7%	2.6%	3.3%	3.4%
자녀연령	미취학자녀 없음	75.0%	75.9%	67.8%	80.8%
	미취학자녀 있음	25.0%	24.1%	32.2%	19.2%

바쁘다고 느끼십니까?”(항상바쁘다=1, 전혀바쁘지 않다=4)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1999과 2009년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이 문항의 점수를 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재조정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생활시간은 통계청의 시간일지 구성을 기본 모델로 하고(통계청, 2010),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한 연구(김정석, 2005; 손문금, 2010)를 참고로 하여 크게 유급노동, 무급노동(가사노동, 가족돌봄노동 포함), 여가, 그리고 개인유지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은 특정 조사일에 수행한 유급노동시간 및 유급노동과 관련된 시간(일 중간에 휴식, 재택근 근무,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구매활동)을 합산하였다. 또한 자료에 나타난 주당근무시간

에 대한 문항(단일문항)도 유급노동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무급가사노동시간은 일반적인 가사노동(빨래, 음식만들기, 청소, 모든 구매활동(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 가정관리와 은행 및 관공서 방문과 같은 기타 관리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무급가족돌봄활동에 대해서는 생활시간자료에 자녀(미취학부터 고등학생까지), 배우자, 기타 가족원의 돌봄활동을 모두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자료에 나타난 무급가족돌봄활동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가활동에는 사교활동시간(전화나 문자메시지, 트위터 모두 포함), 종교와 관련된 일체 활동시간, 텔레비전 및 매체(라디오, 오디오, 컴퓨터 및 핸드폰을 제외한 기타 미디어) 활용시간, 문화활동 및 야외활동

〈표 1-2〉 30-59세 도시거주 취업자 남녀의 성별과 연도별 분석대상자 특성

		1999(n=6,647)		2009(n=3,497)	
		남성	여성	남성	여성
		60.1%	39.9%	59.4%	40.6%
연령	30대	41.1%	40.3%	27.4%	27.0%
	40대	37.6%	39.1%	44.5%	45.5%
	50대	21.3%	20.6%	28.1%	27.5%
교육수준	중졸이하	22.5%	48.0%	10.9%	23.2%
	고등학교	47.8%	40.3%	43.3%	50.1%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25.7%	10.8%	39.6%	24.4%
	대학원이상	4.0%	0.9%	6.2%	2.3%
결혼지위	배우자 있음	97.3%	87.3%	95.3%	89.6%
	이혼	0.8%	7.6%	0.5%	3.5%
	사별	1.9%	5.1%	4.1%	6.9%
자녀연령	미취학자녀 없음	45.7%	54.3%	46.1%	47.0%
	미취학자녀 있음	46.9%	53.1%	53.9%	53.0%

시간(스포츠경기관람 포함), 스포츠와 운동 및 기타 신체활동시간(등산 및 하이킹 포함), 음주 및 흡연시간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까지 포함하였다. 개인유지시간은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과 수면외개인유지(먹기, 마시기, 씻기, 몸 단장, 건강관리를 위한 행위시간, 그리고 병원 방문시간)시간이 포함되었다. 한편, 총자유시간은 언급한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과 더불어서 시간일지에서 나타나는 학습과 단체활동참여시간을 모두 합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시간은 이동행위와 관련된 활동(출퇴근 시간, 가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여가활동을 위한이동시간, 돌봄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기타 이동시간)의 시간들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포함시킨 이동행위는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 출퇴근시간, 그리고 무급가사활동 및 무급가족돌봄을 위한 이동의 4가지 주요활동이었다.

3. 분석방법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시간부족인식의 연도별 차이를 밝히고 취업남녀를 중심으로 그들의 시간부족 인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기술적,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표본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단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999년과 2009년 두 개의 생활시간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간부족인식과 생활시간배분양상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시간부족인식과 생활시간활용의 변화를 추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09년도 자료 가운데 취업남녀에 대한 2차 표본에서 나타나는 시간부족인식 수준과 시간활용의 관련성을 ANCOVA 분석 및 순서화로지트모형을 살펴보았다. 순서화로지트분석에서는 시간부족이 가용시간의 부족분에 의해 초래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자유시간에서 특정행위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으로 가용시간 부족분을 살펴보았

고, 그것이 시간부족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성별 차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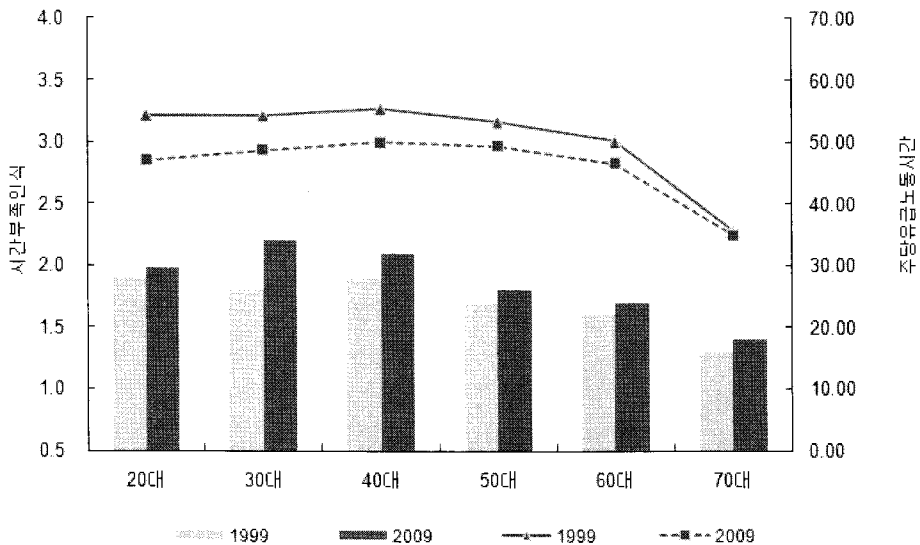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시간부족인식 및 노동시간의 관련성(1999, 2009): 성인의 일상생활은 더 바빠졌는가?:

<그림 1>의 하단의 막대그래프는 1999년과 2009년 도시가구 가구의 시간부족인식수준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9년 자료 모두에서 시간부족인식은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가 이후 40대 이후 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부족인식이 약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연도별 차이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1999년도에 비해 2009년의 막대그래프가 모든 연령층에서 시간부족인식 수준이 높

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큰 차이가 아니기는 하나, 시간부족인식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스트레스의 증가폭은 30-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의 상단의 꺾은 선 그래프는 주당평균유급노동시간의 연령별 분포를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999년의 주당평균노동시간에 비해 2009년의 주당평균유급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하향이동하였다. 주당노동시간이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와서 감소했음을 뜻한다.

<표 2>는 성별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성인 가운데 20-79세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시간부족인식 분포를 보게 되면, 남성은 약 67%(1999년) 혹은 68%(2009년)가 시간부족을 느끼는 항상 혹은 종종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전체표본에서 여성은 전체의 64%(1999년), 그리고 65%(2009년)로 나타나서, 남성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다. 그런데, 30-59세 취업자 표본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별 차이는 역전되었



(그림 1) 시간부족인식의 변화 및 노동시간의 연도별 분포: 1999(n=15,391), 2009(n=7,809)년도 자료

〈표 2〉 성별 시간부족인식의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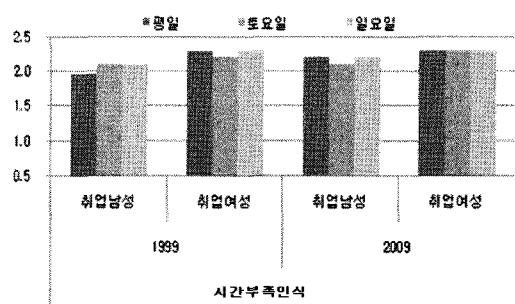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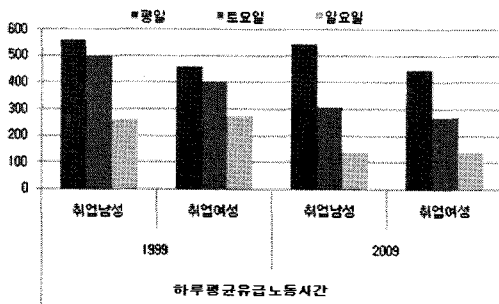
시간부족인식	도시거주자 20-79세 성인 표본				도시거주 30-59세 취업자 표본			
	1999(n=15,391)		2009(n=7,809)		1999(n=6,647)		2009(n=3,497)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항상 느낀다	24.3%	23.2%	27.2%	25.2%	30.7%	43.4%	34.8%	42.6%
종종 느낀다	43.0%	41.0%	41.4%	40.9%	48.0%	42.6%	48.4%	44.6%
별로 느끼지 않는다	22.4%	24.2%	21.9%	22.7%	16.9%	11.1%	14.6%	11.3%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3%	11.7%	9.5%	11.3%	4.5%	2.9%	2.2%	1.4%

다. 시간부족을 “항상”느낀다는 집단의 비중은 각 성별 내에서 취업여성 42.6%인데 반해 취업남성은 34.8%로 취업여성이 시간부족을 더 많이 느꼈다. “종종 느낀다”의 집단까지 합산하면, 취업여성의 87.6%가 시간부족을 어느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남성은 83% 수준으로 취업여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1999년에 비하면, 주당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하여, 일정보상에서의 시간제약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생활시간자료 상에서 나타나는 응답자들의 시간부족인식은 오히려 시간부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시간부족인식과 시간소비의 관련성: 휴일과 평일비교

앞서 <그림 1>에서 시간부족인식이 주당노동시간의 장단과 연동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시간의 강약이 나타나는 요일별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그림 2>에서는 취업남녀의 요일별 하루평균유급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지난 1999년에 비해 2009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노동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다소, 요일특성이 매우 뚜렷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일에 유급노동시간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시간부족은 하루평균유급노동시간과는 상이한 방향이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림 2〉 30-59세 도시거주 취업자 남녀의 하루평균유급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요일별 분포 : 1999(n=6,647), 2009(n=3,497)년도 자료

평일을 제외한 휴일에도 좀처럼 시간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9년보다 2009년에 오히려 심화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휴일이라도 금요일과 일요일의 중간에 낀 토요일의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평일에 비해 시간부족이 다소 감소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취업여성은 2009년도의 통계에서, 요일을 불문하고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취업남녀의 일상생활의 변화: 무엇이 변화하였나?

이처럼 2009년 들어 성인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느끼는 것이 그들의 시간활용 패턴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표 3> 참조). 취업남녀 모두 유급노동의 행위자 평균시간(유급노동행위를 한 대상자)은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2009에 와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사노동의 경우 취업남성은 행위자 비율도 약간 증가하였고(33.0%→43.3%)고 또한 무급가사노동 평균행위시간도 6분(54.1분→60.1분)가량 증가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무

급가사노동의 행위자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97.1%→96.8), 무급가사노동의 평균행위시간은 약16분가량(170.9분→154.2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돌봄노동시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9년 자료에서 취업남녀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남성의 경우 행위자비율(19.4%→26.4%)과 평균행위시간(68.4분→76.1분) 모두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여가시간 역시 매우 미세하기는 하나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취업남녀 모두, 2009년에 약간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시간 가운데서도 특히 개인유지시간은 1999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2004년 자료에서 남녀 모두 평균행위시간이 약 50분(취업남성: 614분→662.9분, 취업여성: 595.9분→648.6분)을 웃도는 크기로 증가하였다. 개인유지시간의 대부분이 수면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외개인유지시간을 함께 살펴보았다. 결과를 보면, 취업남녀 모두 40분이 넘는 수준으로 수면외개인유지시간에서의 증가(취업남성: 154.3분→197.0분, 취업여성: 155.4분→191.2분)가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음식섭취, 씻기 및 목단장, 건강관리, 그리고 치료 및 의료기관

<표 3> 30-59세 도시거주 취업자 남녀의 시간활용 양상의 연도별 비교: 1999, 2009년도 자료

(단위: 분, %)

	취업남성				취업여성			
	1999 (n=3,995)		2009 (n=2,077)		1999 (n=2,652)		2009 (n=1,420)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유급노동	566.0	87.1%	524.3	78.4%	481.5	85.8%	462.4	74.8%
무급가사노동	54.1	33.0%	60.5	43.3%	170.9	97.1%	154.2	96.8%
무급가족돌봄노동	68.4	19.4%	76.1	26.4%	67.2	49.3%	78.4	51.1%
여가시간	286.9	98.9%	289.4	99.1%	210.9	96.7%	218.6	97.5%
개인유지시간	614.9	100.0%	662.9	100.0%	595.9	100.0%	648.6	100.0%
수면시간	460.6	100.0%	465.9	100.0%	440.5	100.0%	457.4	100.0%
수면외개인유지	154.3	100.0%	197.0	100.0%	155.4	100.0%	191.2	100.0%

방문 등의 행위가 수면외개인유지시간에 해당한다.

4.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특성의 상호관련성

그렇다면, 평일과 휴일 각각에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 시간부족인식과 시간소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부족인식의 차이에 따라 생활시간배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시간부족인식은 앞서 4점 척도로 측정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시간부족인식 수준을 “바쁘지않은집단”(시간부족(-): 리코드 된 척도 점수 1-2점)과 “바쁜집단”(시간부족(+): 리코드 된 척도 점수 3-4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간부족인식의 차이와 요일에 유급노동시간이 차이가 있는 만큼, 요일을 구분하여 <표 4>에서는 평일, 그리고 <표 5>에서는 휴일의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

<표 4>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경우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유급노동이 취업남성 평균 약 43분, 취업여성 평균 66분가량 길었다. 수면외개인유지와, 이동 역시 취업남성에서는 각각 평균 약 7분가량 길었다. 다만, 바쁘다고 인식하는 취업여성은 이동시간이 10분 더 길었지만, 수면외개인유지시간은 오히려 평균 5분가량 짧았다.

무급가족돌봄노동, 여가, 총자유시간, 그리고 수면은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집단이 덜 바쁜 집단보다 짧았다. 특히 바쁜 취업남성들은 시간부족을 덜 느끼는 취업남성에 비해 총자유시간은 평균 41분, 여가시간은 평균 21분이 적었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시간부족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활동이 수면과 총자유시간으로 각각 평균25분, 평균 30분가량 짧았다. 취업남녀가 바쁘다는 것은 유급노동과 이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총자유시간이나 여가 혹은 수면과 같은 휴식시간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전반적

<표 4> 30-59세 도시거주 취업자 남녀의 평일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의 관련성: 2009년도 자료

(단위: 평균시간(분))

	취업남성 (n=2,077)			취업 여성 (n=1,420)		
	시간부족(-)	시간부족(+)	(+) - (-) 차이	시간부족(-)	시간부족(+)	(+) - (-) 차이
유급노동	508.0	550.5	42.5 **	386.2	452.1	65.9 **
무급가사노동	18.7	18.7	0	146.3	139.4	-6.9
무급가족돌봄노동	14.9	13.3	-1.6	48.6	38.8	-9.8
여가활동	170.7	149.1	-21.6 **	121.0	119.6	-1.4 *
이동	126.9	133.6	6.7 *	95.8	106.3	10.5
총자유시간	267.0	226.0	-41.0 **	216.2	191.6	-24.6 *
수면	443.4	439.4	-4.0	462.1	432.2	-29.9 *
수면외개인유지	263.0	270.6	7.6	262.5	267.9	-5.4

*:p<.05, **: p<.01

2) <표 4>와 <표 5>의 모든 분석은 연령과 소득수준, 월평균임금수준, 결혼지위 그리고 자녀연령구성은 통제하였다(ANCOVA 분석). 전체대상자의 활동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평균시간은 비행위자의 시간을 0시간으로 설정하여, 전체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5) 30-59세 도시거주 취업자 남녀의 휴일(토요일, 일요일)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의 관련성: 2009년도 자료
(단위: 평균시간(분))

	취업남성 (n=2,077)			취업여성 (n=1,420)				
	시간부족(-)	시간부족(+)	(+) - (-)차이	시간부족(-)	시간부족(+)	(+) - (-) 차이		
유급노동	189.9	224.4	34.5	**	189.3	200.6	11.3	**
무급가사노동	53.2	51.3	-1.9		186.3	204.3	18.0	*
무급가족돌봄노동	22.3	31.0	8.7	*	39.6	40.0	0.4	
여가활동	170.7	149.1	-21.6	**	221.6	189.7	-31.9	**
총자유시간	469.6	423.5	-46.1	**	334.8	300.6	-34.2	**
이동	111.7	127.8	16.1	*	113.5	103.2	-10.3	
수면	508.1	502.2	-5.9		496.3	486.9	-9.4	*
수면외개인유지	276.7	295.6	18.9		279.2	293.8	14.6	*

*:p<.05, **: p<.01

인 패턴에서 남녀는 무급가사노동시간과, 수면 외개인유지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평일의 이러한 양상과는 달리 휴일에는 시간부족과 시간활용의 관련성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와 <표 5>를 비교하여 보면, 취업남성의 경우 평일무급가사노동(평균 18분)보다는 휴일에 무급가사노동(평균 52분)이 약 35분정도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는 취업남성이 시간부족을 덜 느끼는 취업남성에 비해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약간 더 짧았다. 취업여성의 경우 역시 평일(평균 142분)보다는 휴일에 무급가사노동시간(평균 190분)이 약 40분-50분가량 증가하는데, 특히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휴일무급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아마도 바쁜 취업여성들이 휴일에 밀려둔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휴일 무급가족돌봄시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는 취업남성은 시간부족을 덜 느끼는 취업남성에 비해 휴일 무급가족돌봄시간이 약 8.7분

더 길게 나타났지만, 취업여성의 경우 시간부족인식과 무급가족돌봄시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요일별 차이도(<표 4>와 <표 5>)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동시간의 경우 시간부족을 지각하는 취업남성은 휴일이동시간이 시간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취업남성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는 집단이 시간부족을 덜 느끼는 집단에 비해 오히려 짧았다.

휴일의 시간활용에서는 이러한 차이점 뿐 아니라 남녀 간의 공통점도 발견되었다. 취업남녀가 동일하게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집단은 휴일에도 일정수준의 유급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평소에 시간부족을 인식하는 취업남녀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휴일에 수면외개인유지시간을 길게 사용하는 특성 또한 발견되었다. 그러나 총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 그리고 수면시간은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예상대로 더 짧았다. 즉 시간부족을 인식하게 되면, 휴일에도 여가와 자유, 수면과 같은 소위 “휴식”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시간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 6〉 30-59세 도시거주 취업자 남녀의 총자유시간 대비 각 활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의 관련성에 관한 순서화로지분석 결과: 2009 년도 자료

		취업남성		취업여성	
		b		b	
Thresholds	τ 1	-4.28	***	-5.08	***
	τ 2	-2.15	***	-2.72	***
	τ 3	-0.35	**	-0.83	***
총자유시간 대비 활동시간비율	유급노동비율(ref.55.00% \geq)				
	34.49% $<$	-0.19	***	-0.48	***
	35.00% \geq , 54.99% \leq	-0.19	***	-0.35	***
	무급가사노동비율(ref.7% \geq)				
	7% $<$	-0.04		0.08	
	무급가족돌봄노동비율(ref.2.5% \geq)				
	0%-0.7% (가족돌봄노동거의없음)	-0.10		-0.17	*
	0.7% \geq , 2.5% $<$	-0.21		-0.33	**
	이동시간비율(ref.12% \geq)				
	12% $<$	-0.19	***	-0.03	***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가활동비율(ref.20% \geq)				
	20% $<$	0.33	***	0.23	***
	요일(ref.일요일)				
	평일	-0.29	***	-0.17	**
	토요일	-0.19	**	-0.09	
	연령(ref.50대)				
	30대	0.37	***	0.08	
	40대	0.22	***	0.01	
	자녀의 연령구성 (ref.자녀모두 취학)				
	가구 내 자녀 미취학 있음	-0.15	*	-0.18	*
혼인상태 (ref.유배우)					
무배우(자)	0.02		0.23	*	
교육수준(ref.전문대학졸 이상)					
고졸 및 그 이하 학력	-0.09		-0.19	*	
총가계소득분위 (ref.75%초과)					
25% 미만	-0.19	**	-0.18	*	
25%-50%	-0.21	+	-0.05		
50%-75%	-0.15	**	0.05		
-2 Log Likelihood		3,139.06		2,387.59	
Chi-Square		134.94		88.13	
df		14		17	
n		2,077		1,420	

주) 총자유시간 대비 각 활동시간의 비율은 전체 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25%상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수치이다. 순서화로지분 모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complementarylog-log모델을 사용하였다.

+: p<.10* p<.05, ** p<.01, *** p<.001

볼 수 있겠다.

5.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부족인식은 시간활용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우선성을 두는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 혹은 개인에게 중요한 활동을 시간계획외의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부족을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Daly, 1996, 2001). 이는 시간부족이 <표 4>, <표 5>와 같이 실제 소비하는 시간양(amount of time)과는 별도로 상대적인 시간과 연동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시간부족인식과 부적 관련성이 나타난 총자유시간을 기준으로 이 총자유시간 대비 각 활동들의 상대적인 소비비율과 시간부족인식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총자유시간의 비중이 개별 활동시간으로 줄어드는 비율에 따라 시간부족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본 것이다(<표 6>참조). 총자유시간에서 노동시간, 무급가사노동시간, 무급가족돌봄노동시간, 여가시간, 이동시간 각각의 비율이 종속변수인 시간부족인식의 관련성을 순서화로지분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결과를 제시하였다. 총자유시간에 대한 비율구분을 위해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유급노동시간, 무급가족돌봄노동시간)³⁾. 분산수준이 넓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많은 대상자가 평균치는 50%수준에 몰려있는 경우(무급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이동시간의 경우 해당)는 그 평균값 비율을 중심으로

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순서화로지분에서는 비표준화계수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목표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갖게 되면, 목표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목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총자유시간대비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시간부족과는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이 총자유시간의 55%를 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장시간노동에 비해 시간부족을 경험할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시간 역시 총자유시간 대비 이동시간이 12%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위험이 낮았다.

취업여성의 경우는 총자유시간대비 무급가족돌봄노동시간의 비율도 시간부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무급가족돌봄노동의 비중은 총자유시간대비 2.5%에 불과했지만, 무급가족돌봄노동의 비율이 그보다 적으면 시간부족인식을 경험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총자유시간 대비 무급가사노동시간 변수와 비교해 볼 때, 그 상대적 중요성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총자유시간 대비 이동시간 역시 시간부족인식과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동시간을 줄여서 총자유시간의 비중이 증가했을 경우,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총자유시간대비 여가시간의 경우, 그 여가시간의 상대적 비율이 적을 때, 다시말

3) 평균비율로부터 하위 25%와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준선으로 활용하였다. 가령, 총자유시간에서 유급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44%이었다. 즉, 대부분의 취업자들의 유급노동시간은 총자유시간 대비 평균 44%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4.99%가 하위 25%에 해당하며 54.99%는 상위 25%를 가르는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34.99% 이하는 총자유시간과 비교해 볼 때 유급노동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54.99% 이상의 경우 대상자들이 총자유시간의 비중보다 유급노동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총자유시간 내에서 여가(여기에서는 사교와 종교, 건강행동 및 스포츠와 취미생활)시간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은 높았다. 이는 역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있는 여가”를 가질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총자유시간에서 여가활동소비시간의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간부족을 덜 느끼고, 그에 따르는 부정적 정서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간관련 변수들과 더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간부족인식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시간변수들이 통제된 후에, 취업남녀 모두에서 요일특성은 시간부족인식과 관련성이 나타났다. 일요일에 비해 평일이나 토요일에 지각하는 시간부족인식 수준이 낮았다. 즉, 유급노동이 없는 일요일에도 취업남녀가 시간부족을 지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연령별 차이는, 취업남성에서 50대에 비해 30대와 40대가 유의미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 차이가 취업여성의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취업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 시간부족을 덜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취업여성의 경우는 만성적인 시간부족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애단계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자녀의 연령특성의 경우는 취학아동의 여부가 시간부족과 관련성이 있었고, 남녀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취학아동을 둔 취업자와 비교해 볼 때,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자가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적었다. 자녀가 학동기에 접어들면, 부모양육부담이 해소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Bianchi et al., 2006)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시간의 측면에서는 오히

려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부족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방향이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생활시간 자료를 분석한 차승은(2010)의 연구나 수면시간연구결과(은기수·차승은, 2010)에서도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시간압박이 높고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취학자녀의 양육부담이 이러한 시간활용과 시간제약 차원에서 참여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상태가 시간부족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취업남성과 취업여성에서 차별적이었다. 취업남성의 경우 결혼지위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런데, 취업여성의 경우는 무배우자취업여성(여기에서는 이혼 및 사별의 경우)이 유배우자취업여성보다 시간부족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없이 가족역할과 취업역할을 병행해야하는 경우 평상시에 시간압박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무배우자취업여성에 비해 더 취약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도 시간부족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취업남성의 경우 고소득집단에 비해, 저소득 혹은 중소득 집단이 시간부족을 경험할 위험이 적었다. 취업여성의 경우 교육효과가 역시 유의미하였다. 대학 혹은 대학원 이상의 취업여성과 비교해 볼 때,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여성은 시간부족을 느낄 가능성이 적었다.

V. 토의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지난 1999년과 2009년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들은 얼마나 시간부족을 겪고 있는지, 특별히 취업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간부족은 어떠한 사회

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먼저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부터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인 통계청의 1999, 2009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기본적으로 횡단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 변수들 간의 순서나 인과성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역인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시간부족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시간활용도 특정 패턴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 또한 시간부족인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의 단일문항의 지표를 가지고는 그러한 복합적인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시간부족은 단순한 지표이기는 하나, 현재 시간관련 국제연구에서 비교문항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Szollós, 2009)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는 점은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시간자료는 시간과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는 반면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종속변수로 쓸 수 있는 재료가 될 만한 정보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활시간자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시간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시간부족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과 그에 대한 탐색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부족인식이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다소 높아졌으며, 특정한 성이나 연령에 불문하고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2009년에 와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간부족은 30-40대에 집중되고, 나머지 5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시간부족인식이 크게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생애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부족의 연령 불평등성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둘째, 취업남녀의 지난 10년간의 시간활용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전체적인 총량수준에서 유급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와 수면 외개인유지시간이 증가하여 구조적으로 가용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시간부족을 야기하는 유급노동시간의 절대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부족은 오히려 증가한 양상이다. 이는 유급노동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서 혹은 시간활용방식에서 시간부족을 야기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시간활용패턴에서 같은 기간 두드러진 경향은 평일과 휴일로 분산된 유급·무급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취업남녀의 경우 평일에는 시간부족인식이 유급노동과 연동하고, 휴일에는 무급노동시간이나, 그리고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유급노동시간과 시간부족인식이 반응하였다. 즉, 시간부족인식은 유급과 무급의 노동시간의 규모와 연동하면서 주7일 전체로 분산이 이루어진 양상이었다. 주5일제 근무로 유급노동의 절대적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일 공백을 결국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채우는 방식으로 유급과 무급노동의 교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마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999년에 비해 2009년에는 취업남성과 취업여성의 시간부족인식의 차원에서 평일과 휴일구분은 오히려 모호해 졌고, 총량적으로 시간부족인식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요 내용과 함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첫째, 취업남성의 일상생활에서 무급가사노동 및 무급가족돌봄노동의 비중과 중요도가 관찰되었고, 그것은 1999년과 2009년 자료에서

관찰되는 취업남성 집단의 시간활용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기간에 취업여성 집단에서 관찰되는 무급가사 및 무급가족돌봄노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하나, 취업남성들이 상당부분 이러한 가사 및 가족돌봄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지난 1999년과 2009년 자료 비교에서 명확한 차이로 드러났다는 점은 주요한 발견이라고 하겠다. 한편 취업남성은 장시간에 걸친 유급노동시간과 출퇴근시간까지 포함하는 강도 높은 직업역할 수행으로 인해 시간부족인식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시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시간자원의 배분관점에서, 제한된 시간계좌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취업남성에게 가사와 돌봄노동의 비중의 증가가 현재의 시간활용측면에서는 쉽지 않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 가운데 현재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부분은 유급노동분야의 개선이라 하겠다. 자유시간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부족인식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를 통해 취업남성의 직종 및 종사상 산업별로 시간부족 해소 방안과 유급노동시간의 조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탄력근무제시행과 같은 시간융통적 업무환경을 위한 제도확립(정명기, 2010)을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취업남성들이 무급가사노동, 무급가족돌봄노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음을 행위자비용의 증가와 행위시간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무급가사노동과 무급돌봄노동에서 여성의 행위자비용이나 행위시간은 그 절대적 수준에서 높다. 이러한 일/가족 병행을 위해 여성들은 평일과 휴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분산시키는 전략(strategy)을 쓰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관리 면에서 취업여성의 가족역할부담은 증가하는 방향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시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애단계상의 어떠한 특성들이 취업여성의 시간부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다양한 직종별로 어떠한 직업적 특성이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시간활용면에서 충돌하고, 제약을 가하는지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남녀모두 이동시간 및 총자유시간 대비 이동시간이 시간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출퇴근시간, 다시 말해서 일터와 가정을 오고가는 중간지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교통량 분산과 환경문제를 위해 “스마트존(smart zone)”, “스마트 오피스”의 설치를 제안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일산이나 분당지역과 같이 수도권 출퇴근 인구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월단위로 사무실을 대신하는 중간 사무실 업무를 권장한 것이다. 실제로 공해문제해결을 위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캠페인은 이동시간 소비와 그로인한 시간압박과 시간부족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완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재테크 근무와 시간융통제 시행에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관리관점에서, 개개인의 시간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면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시간조율에도 상당한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단 환경문제해결만이 아닌 개인의 시간관리와 시간부족, 더 나아가서는 그로인한 스트레스의 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적 홍보와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이 연구를 통해 단순한 자유시간의 증가가 아닌 “좋은 여가”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강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의 종류가 급격히 확대를 이루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여가강박, 운동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김용희·장훈·허태균, 2010). 이는 가족생활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가족원들 간의 시간관리와 시간자원의 배분수준을 가늠하면서, 시간부족의 해소 차원에서 “좋은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참 고 문 헌】

- 1) 김용희·장훈·허태균(2010). 여가강박에 관한 개념연구. 여가학연구, 8(2), 59-82.
- 2) 김정석(2005). 한국중년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2-201.
- 3) 김정석·은기수·차승은(2010). 일상생활의 시간구조와 시간체험: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통계청용역미간행보고서.
- 4) 류재숙·박연옥·이승곤(200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 관공연구저널, 19(1), 31-47.
- 5) 민도식(2010). 직장인의 시간활용법: 효율적인 시간관리전략, 지방행정, 59, 76-77.
- 6) 박은정·김외숙(2008). 중학생의 시간관리 : 관련변수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41-55.
- 7) 보건복지부(2010). <http://www.mw.go.kr>.
- 8) 서인주·두경자(2009). 대학생의 시간매트릭스 사용과 시간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 47(8), 13-24.
- 9)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 239-287
- 10) 손문금(2010). 서울시민의 이동행동에서의 젠더차이. 한국인구학, 33(1), 1-25.
- 11)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12) 윤대혁(2008). 맞벌이 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3, 87-109.
- 13) 윤소영·유지원·강옥·김향자·노원국(2007). 여가정책영역 및 향후과제에 대한 제안 연구. 여가학연구, 5(2), 72-87.
- 14) 윤소영(2003). 주5일 근무제와 가족자원의 변화: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81-97.
- 15) 은기수·차승은(2010).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수면시간과 관련 요인 탐색. 통계연구 15(2), 82-103.
- 16) 이승미·이기영(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 제약과 가사노동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6(2), 123-136.
- 17) 이영환·이수재(2007).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25.
- 18) 임문선(2005). 주5일 근무자의 라이프스타일. 광고정보, 6, 106-111.
- 19) 정명기(2010).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와 노동 유연성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28(2), 29-52.
- 20) 정순희·김현정(2002). 시간제약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15-29.
- 21) 지현진(2010). 여가생활주기에 따른 시간 사용의 차이비교. 여가학연구, 8(2), 127-147.
- 22)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23)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차이와 관련요인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24) 통계청(2011). <http://www.kostat.go.kr>.

- 25) Bianchi, Suzanne M., Lynne M. Casper and Rosalind B. King(2005). *Work, family, health and well-Being*. New Jersey: Lawrence.
- 26) Bianchi, Suzanne, John, P. Robinson and Melissa A. Milike(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York: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27) Bird, C.E., & Rieker, P.P.(1999). Gender matters: an integrated model for understanding men's and women'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48(6), 745-755.
- 28) Bittman, M.(2011). *The Visible and the hidden: The relationships market and non-market production in creating family welfare*. Proceedings fro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milies as Social Capital, Seoul Korea(May 19-20, 2011).
- 29) Carstensen, L.L.(2006). The influence of sens of time on human development, *Science* 372, 1913-1915.
- 30) Carstensen, L.L.(2002). Time counts: Future time perspective, goals, an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y and Aging*, 17(1), 125-139.
- 31) Daly, K.J.(1996).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California: Sage.
- 32) Daly, K.J.(2001).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 (Edt). Oxford: Elsevier Science.
- 33) Dreake, L., Duncan, E., Sutherland, F., Abernety, C., & Henry, C.(2008). 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ime and Society*, 17, 47-61.
- 34) Garhammer,(2002). Pace of life and enjoyment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3), 217-256.
- 35) Gershuny, Jonathan.(2000). *Changing time-work and leisure in post 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 36) Gunthrope, W. & Lyons, W.(2004). A predictive model of chronic time pressure in Australian Population: Implications for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 26, 201-213.
- 37) Hochschild, A.(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 38) Hochschild, A.(1996). *Time bind*, New York: Henry Holt.
- 39) Lim, T.(2009). An exploratory study of time stress and its causes among government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uary, 104-115.
- 40) Mattingly, M.J. & Sayer, L.C.(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 in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 41) Mattingly, M., & Bianchi, S.(2003). Gender difference in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81(3), 999-1030.
- 42) Melissa A. M., Mattingly, M., Nomaguchi, K., Bianchi, S., and Robinson, J.P.(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739-761.
- 43) Menzies, H., and Newson, J.(2007). No time to think. *Time and Society*, 16(1), 83-98.
- 44) Michelson, W.(2005). *Time use: Expand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ocial sciences*. Boulder: Pradime Publishers.
- 45) Moen, Phyllis.(2003). *It's about time:*

- Couples and care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46) Norgate, S.(2006). Beyond 9 to 5: Your life in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47) Putnam, R.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48) Robinson, J. P., & Godbey, G.(1999).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49) Sayer, Liana.(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Social Forces, 84(1), 287-303.
- 50) Schor, J.(1992). The over 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 51) Schwarz, B.(2004). The paradox of choice: Why more is better?. New York: Harper Colloins.
- 52) Southerton, D.(2003). Squeezing time: Allocating practice coordinating networks and scheduling society. Time and Society, 12(1), 1-25.
- 53) Southerton, D.(2006). Analyzing temporal organization of daily life: Social constrains, practice and their allocation. Sociology, 40(3), 435-454.
- 54) Szollos, A.(2009). Toward psychology of chronic time pressu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Time and Society, 18, 332-350.
- 55) Teuchmann, K., Totterdell, P. and Parker, S.K.(1999). Rushed, unhappy, and drained: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ime pressure, perceived control, mood, and emotional exhaustion in a group of accountant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1), 37-54.
- 56) Zuzanek, J.(2004). Work, leisure, time pressure and stress, in Haworth, H.J. and Veal, A.J. (eds.) Work and Leisure (p. 123-144). New York: Routledge.

- 투 고 일 : 2011년 6월 20일
- 심 사 일 : 2011년 7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24일